

SUNBO FAMILY

SUNBO Ind Co., Ltd.

TEL 051. 261. 3454 www.sunboind.co.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vol.69

2009. 10. 05

since 1986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우리 완주 했어요”

KNN 가족사랑 환경마라톤대회 참석



“마리톤 참여해 건강도 챙기고, 시름도 만나고 일석이조”

가을 하늘이 유난히도 맑았던 지난달 13일, 부산경마공원에서 열린 가족사랑 환경마라톤에 단체티를 맞춰 입고, 건강달리기 열심인 100여 명의 선보패밀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KNN 주최로 하프마라톤, 10km 로드레이스, 5km 건강달리기로 구성됐으며 1만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우리 회사에서는 최금식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과 열정적인 사원들이 5km 건강달리기와 10km 로드레이스에 도전해 모두 완주했다. 또한 마라톤 후 단체사진 촬영과 준비된 식사와 막걸리를 함께하며 함께해 준 직원들을 격려했다.

5km 건강달리기에 도전해 완주에 성공한 문해기 계장은 “평소 생각은 하지만 운동량이 적은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이번 마라톤을 계기로 건강도 챙기고, 다른 부서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하며 “특히 상무님 등과는 개인적으로 보기 어려운데 마라톤을 하면서 함께 경마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입사한 장철민 사원은 이번엔 10km 완주에 성공했다. 1년에 한 번 이상 마라톤을 하고, 사내 축구동아리를 통해 꾸준히 운동을 즐겨하는 장철민 사원은 “입사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던 사내 사람들과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회사에서 두 명의 여성 참가자가 5km레이스에 도전해 완주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는 여성참가자 조재현 사원은 “날이 더워서 고생했지만 완주해 기분이 좋다”며 “가볍게 걸어도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 '200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돼 정부로부터 인사관리시스템 공신력 인정 동종업계 대비 경쟁우위 초석 마련



우리 회사가 '200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0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우리 회사는 노동부 등 정부 4개 부처 명의로 된 'Best HRD(인적자원개발)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이날 인증식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혁신활동의 하나로 구축한 ‘BSC 활용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에 기반을 둔 인재제일 기업문화를 유지해 해양 및 육상 부문의 모듈 전문 초우량 일등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 말했다.

이번 심사에서 우리 회사는 ▲중장기 교육훈련체계를 통한 핵심기술 및 관리 인력의 양성 ▲가족친화경영에 기반을 둔 CEO의 인재제일 교육의지와 실천력 ▲중장기 경영전략과 단기 사업계획에 명확한 인적자원개발지표 설정 및 관리 ▲사내 현장 자격증제도를 활용한 표준화된 고급 생산기량 향상 교육 실시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이번 Best HRD 수여로 우리 회사는 기업경영환경측면에서 타 경쟁사에 비해 인적자원에 대한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로부터 인사관리 시스템의 공신력을 인정받음으로서 HRD 분야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다. 또한 국책 사업 진행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회사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담당자 이재민 대리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관련 서류 및 현장심사 과정을 통해 HRM(인적자원관리)/HRD(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실질적인 동기부여와 동종업계 대비 경쟁우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는 인적자원 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촉진과 모범적인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매년 수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상무 일행 우리 회사 방문



지난달 11일 현대중공업 의장 설계부 한영석 상무 일행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현대중공업의 우수협력업체인 우리 회사의 품질지도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이루어졌다.

한영석 상무는 대화를 통해 “어려운 조선경기의 승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품질’이다”라 강조하며 “선보공업은 잘 정돈된 현장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매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품질우수협력사 상을 받고 있다.

동부산대학 안진환 총장 우리회사 방문

지난 9월 25일 동부산대학 안진환총장 일행이 산학협력과 상호 교류를 위하여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안진환 총장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이 많으며 협력을 통하여 상호 노력하자고 말했다.

회사 소식

교육

업무능률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회사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동료와 함께 실천하는 행동을!

우리회사 Value Jump up-Sunbo 2차 교육 실시 World Best 선보를 위한 초석 마련될 것으로 기대

2010년 World Best SUNBO를 위한 체력 다지기의 일환으로 Value Jump up-SUNBO 2차 교육이 진행 중이다.

직원역량개발과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인 Value Jump up-SUNBO으로 우리 회사는 이미 지난 8월 직원 마인드 교육과 지난 9월 협력업체 마인드교육을 실시해 교육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진행되는 2차 교육은 팀장급, 생산직, 관리직, 팀장대상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10월 한 달 간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팀장대상 2010 원가 의식과 경영이해를 위한 경영시뮬레이션 △생산직대상 2010 용접생산기량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성공사례 △

관리직대상 2010 주안정신으로 무장한 변화와 혁신다지기 △팀장대상 2010 업무 재정립 및 개선을 위한 직무관리 및 OUT 실무 교육.

이미 지난달 29일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한 '2010 용접생산기량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 성공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다대1공장에서 진행된 현장실무 성공사례 교육은 두산중공업 김후진 대한민국 용접명장이 강사로 초청 돼 현장용접공에서 용접 명장이 된 강사의 성공사례와 용접 시공의 기본적 사고, 장인정신, 일터 사랑 등 현장실무 사례 등을 전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사원은 "현장에서 꾸준한 자



기개발을 통해 성공한 케이스를 실제로 듣고 흥미를 느꼈고, 동기부여가 됐다"고 만족스러웠다고 전했다. 또한 흥미 있는 강의에 비해 시간이 한정돼 조금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회사 소식

우리 회사 'UP! 스쿨 1사1교' 협약 맺어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아끼지 않을 터

『UP! 스쿨』 합동



우리 회사가 지난 6일 다대중학교와 'UP! 스쿨 1사1교(校)' 협약식을 가졌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UP 스쿨 1사1교 협약은 학교와 기업체가 결연해 기업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금이나 기타 교육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학교는 지역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실시해 오고 있다.

어려운 환경의 지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어르신 및 불우이웃 급식을 지원해왔던 우리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 지원 범위를 한층 넓히게 됐다.

우리 회사는 이번 'UP! 스쿨' 협약을 통해 다대동 4개 교에 600만 원, 영도 동삼동 5개교에 6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또한 결연학교 교육시설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에 협약을 맺은 다대중 학교에는 1,000 만 원 상당의 전광판을 기증했다.

윤강재 차장은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회사 소식

지역 거주 어려운 이웃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우리 회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해마다 우리 회사는 지역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활동이나 기부를 해왔다. 올해의 경우 지역에서 실시하는 '쌀 나누기 행사'에 쌀을 기부하는 것으로 마음을 나누었다.

윤강재 차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 등에 더욱 더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우리 회사는 28일 다대동과 구평동에 10kg짜리 쌀 200포와 100포를 각각 전달했고, 29일 영도 동삼동에 100포를 전달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최후형 상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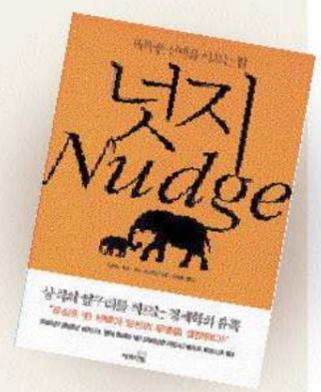
이 한편의 책 '넛지 Nudge'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 라는 뜻의 '넛지 Nudge'는 일종의 자유주의적인 개입 혹은 간섭이다. 즉, 사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개인에게 열려있는 상태를 말한다.

[넛지는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 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단지 '내일 투표할 거냐?' 고 묻는 것만으로도 실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로부터, 디폴트 옵션지정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의 설계까지,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의 생생한 사례들이 소개된다.

타인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버락 오바마와 영국 보수당 당수 데이비드 카메론이 넛지를 활용한 정책을 수용하면서 폭발적으로 유명세를 탔고, 결국 저자 중 한 명인 선스타인은 현재 오바마 정부에 합류해서 규제정보국을 돕고 있다. 그야말로 넛지의 시대가 온 것이다.



추천 여행지

밀양

가을 밀양에 빠져보세요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영화 '밀양'을 기억하는가. 밀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소박한 도시 전경은 영화의 배경이 됐다. 시원한 호박소와 얼음골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고, 표충사에서 아름다운 전통과 자연을 느낄 수 있었던 밀양. 최근 아름다운 도시를 배경으로 영화 밀양과 똥개, 오구, 청평명월 등이 촬영되며 영화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부산-대구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더욱 편리해진 교통편으로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밀양으로 가을 여행 한 번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사보에서는 우리 회사 사진동호회 회원들의 출사 장소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더 많은 정보는 밀양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miryang.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위양지

밀양시 북북면 위양리 동쪽에 위치한 위양못은 못 가운데에 5개의 작은 섬이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곳이다. 위양지는 신라와 고려시대 이래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 어졌던 둑과 저수지로 위양(位良)이란 망민을 위한다는 뜻으로 현재의 못은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쌓은 것이다. 이곳은 이른 봄 못가에 피는 이팝나무로 유명하다. 1986년에 경상남도 지방문화재자료 제 167호로 등록돼 있다.

영남루

영남루는 추화산을 등지고 남천강 맑은 물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절벽 위에 좌우 익루를 끼고 날아갈 듯 서있는 누각이다. 보물 제147호로, 구객사(舊客舍)의 부속건물이다.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1844년에 다시 지어진 조선 시대 후기 건물의 특색을 잘 반영한다. 옛날에 귀한 손님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던 곳으로, 진주 축석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 가운데 하나이다.

연꽃단지

지난 7월 조성해 또 하나의 관광단지가 되고 있는 밀양시 북북면 가산리 3만3000여㎡의 연꽃단지. 이 단지에는 수련과 백련, 홍련 등 24종의 연 2만1000 뿌리가 심어져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연잎·연실 무료체험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수확한 물량은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또 다른 체험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교통편

시외버스 : 밀양-부산 07:00 ~ 20:30
약 21회 운행, 시간 30분 소요
기차 : 밀양-부산 약 6회, 부산-밀양 약 29회 운행



동호회 소식

야구 동호회 창단

선보 다이내믹스의 도전이 시작된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다. 선보의 이름을 새롭게 드높여줄 선보인을 위한 야구동호회 '선보 다이내믹스'가 지난 8월초 창단됐다. '야구를 즐기자'는 모토로 매주 토요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보의 새로운 동호회 '선보 다이내믹스'를 만났다.



즐기는 도전이 아름답다

창단 후 매주 토요일 다대포 해수욕장 등지에서 훈련에 한창인 선보 다이내믹스, 정민길 사원은 "야구의 고장 부산을 연고로 한 회사라 야구를 즐기는 사람이 많지만, 야구 동호회가 없어 아쉬웠다"며 "뜻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게 야구를 해보겠다며 동호회를 만들게 됐다"고 말한다.

창단 멤버수 34명 야구선수 출신 멤버 한 명과 그 동생의 체계적(?) 훈련 덕에 야구인 다워졌다. 그들의 관심은 이 달 둘째 주에 양산 야구장에서 벌어질 불꽃 튀는 청백전. 그 간 쌓아왔던 기량을 어떻게 뽐낼지 궁금하다. 정민길 사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훈련해 사회인 야구단에도 가입할 예정이에요. 가입 후 우리의 첫 목표는 리그 참가해서 '콜드패'는 당하지 말자예요"라 말하며 웃는다. 그는 "성적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운동을 즐기고 사람들을 알아가는 친목동호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선보 다이내믹스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작할 때 마음가짐으로 꾸준한 동호회가 됐으면"

동호회 활동을 하다보면 운동의 재미도 크지만,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 운동 후 뒷풀이. 정민길 사원은 뒷풀이를 통해 사람들 간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고, 교류도 많다고 전한다. 그는 앞으로 "우승을 한다거나, 큰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 시작할 때 열의로 1년, 2년이 지나도 꾸준하게 운동하고, 친목을 다지는 동호회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제 갓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선보인 야구동호회 선보다이내믹스,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도전을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선보다이내믹스의 총무인 정민길 사원에게 "그나저나 회비를 제 때 내지 않는 회원들이 있을 땐 어떻게 하나?"는 다소 엉뚱한 질문을 던지자 그는 태연한 얼굴로 재치있게 답한다. "그렇까봐 제가 급여에서 제합니다".

최동배 부장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탐방

철강의 꾸준함과 강인함을 가진 기업 'DS제강'

우리나라 최초로 스테인리스 강관 사업을 시작한 35년 전통의 스테인리스 강관 전문기업 DS제강. 지난해 12월에 부산공장을 준공하는 등 조선 기자재 사업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 선보와 인연을 맺은 DS제강은 파이프 피스 제품군을 선보에 납품하고 있다. 선보에 대한 느낌을 묻자 임상호 대표는 "방문할 때마다 선보는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틀이 잡혀 있고 정리가 확연하게 됐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사내 복도에 회사의 비전과 구조를 제시해 경영이념을 전사원이 상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DS제강 제품의 품질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임상호 대표는 "품질관리에 철저한 건 선보에서도 알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제품은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냅니다. 35년 간 꾸준하게 같은 일을 해 오고 있다는 자부심과 프로정신으로 품질 하나만큼은 자부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제 갓 1년이 돼 가는 부산 공장의 분위기는 어떨까. 임상호 대표는 직원들에게 "항상 나 보다는 우리를" 강조한다며 "직원들은 서로 협력하며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특히 각 팀장들이 열정을 가지고 술선수범해 일처리를 해 각 팀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DS제강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임상호 대표는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제조업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기존 스테인리스 강관사업과 연계해 원가절감, 매출 신장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선보가 큰 회사로 성장하는데 우리도 이익을 담당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강의 강인함과 꾸준함을 바탕으로 많은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프로' DS제강. 앞으로도 선보와 함께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생생 현장의 소리



조경선 팀장
본사2공장 자재운영팀

2공장의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사 2공장 자재 운영팀 조경선 팀장 2공장 신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바 열정을 가지고 일한 공로를 사 지내며 말 우리 회사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그는 "쑥스럽죠, 고생했다고 주는 상인가보네요"라며 멋쩍은 듯 웃었다.

선보와 함께한 지 6년 째, 본사 자재 운영을 맡다가 2년 전 2공장 신설 후부터 2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고 있다. 어떻게 선보와 인연을 맺게 됐는지 묻자 조경선 팀장은 "원래 다른 회사에서 선보공업에 볼트 납품하는 일을 했다. 그러다가 사장님과 인연이 닿아 선보에서 일하게 됐다"고 전했다.

4명에서 일하는 2공장 자재 운영팀은 항상 바쁘다. 조경선 팀장은 "야드에서는 물건을 가져가는 날씨가 자주 변동되고, 우리는 납기일을 맞춰 일을 진행시켜야 하니까 앞에서 일이 밀리면, 늦지 않기 위해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또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팀원들의 불평이 없나는 질문에 그는 "일적인 면에선 강압적이다"고 딱 부러지게 말한다. "4명에서 일하는데 한 명이 빠지거나 하면 나머지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함께 고생하

고 함께 쉬는 편이 서로에게 나오니까 일할 때는 악역을 맡아 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악역을 하다보면 힘들지 않냐고 묻자 그는 짧게 귀찮다. "팀원들이 이해해주고, 풀어주는 편"이라며 도리어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공장은 어떤 회사라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조경선 팀장은 "2공장은 사람들과 교류도 많고,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2공장의 올해 목표가 420억 돌파입니다. 경기는 어렵지만 회사의 목표에 맞추어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 가족에게 한마디를 부탁하자 조경선 팀장은 쑥스러운지 "3살 난 딸과 아내에게 항상 고맙다"며 짧게 한마디 던진다. 마음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텐데 인터뷰의 부담 때문인지 표현이 서툰 경상도 남자라서인지 그는 팀원들이나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라니까 참 무뎠다. 하지만 짧은 한마디 한마디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조경선 팀장의 애정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선보 칭찬 릴레이 제 41호



김덕현 과장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선보의 웃음바이러스 목포공장 김덕현 과장

Q 이번 호 선보가족 칭찬 릴레이 주자로 뽑히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칭찬 릴레이 주자로 뽑혔다니 쑥스럽네요, 우선 많이 부족한 저를 칭찬 릴레이 주자로 칭찬해 주신 정봉주 직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시지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Q 앞으로 어떤 선보인으로 남고 싶나요?

잔잔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면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데, 좋은 사람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되잖아요, 미소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보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Q 다음 칭찬 릴레이 주자를 추천한다면?

선보하이텍 생산관리부 이경화 계장을 추천합니다. 납품 및 사급을 담당하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려면 때론 짜증나고 지칠텐데, 힘든 내색 하지않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본사 생일

- 설계팀 인병기(10/22)
- 생산관리 신상민(10/19)
- 고객지원 이상훈(10/31) 배영보(10/5)
- 기술연구소 손일락(10/3)
- 1공장 안병선(10/13) 정종교(10/18) 이상민(10/19)
- 윤희동(10/22) 김진환(10/12) 한봉화(10/28)
- 정덕희(10/2) 최병모(10/15) 안병식(10/20)
- 김형보(10/13) 차상민(10/1) 이경식(10/23)
- 김상연(10/30) 이진식(10/17) 이재연(10/19)
- 방대혁(10/24)
- 2공장 김대근(10/11)
- 3공장 김대근(10/11)

본사 입사기념일

- 설계팀 홍기원(10/17)
- 생산관리 김태호(10/12)
- 기술연구소 장호길(10/2) 정호선(10/2) 손일락(10/15)
- 1공장 정세철(10/28) 명철환(10/23) 현광진(10/1)
- 김재현(10/11) 정성남(10/28) 현정현(10/28)
- 조종환(10/28) 박희순(10/2)
- 2공장 정상규(10/21) 유완중(10/29)
- 3공장 백준(10/23) 지기환(10/1)

구평공장 생일

- 자재운영 이태욱(10/8)
- 설계5팀 윤치호(10/18) 이석형(10/4)
- 설계6팀 이수진(10/12)
- 대한ENG 김영환(10/11) 허경원(10/18) 허경남(10/24)
- 보성산업 상정모(10/3) 김명진(10/20) 이동호(10/24)
- 서경클린트 김상삼(10/2) 신광식(10/22) 김태형(10/24)
- 김종수(10/25) 최동식(10/28)

구평공장 입사기념일

- 자재운영 이태욱(10/8)
- 설계6팀 임우택(10/13)

목포공장 생일

- 선보하이텍 강영인(10/11) 박정길(10/4) 정봉주(10/18)
- 문형호(10/2)
- 지디테크 서정호(10/21)

목포공장 입사기념일

- 선보하이텍 이충훈(10/13) 문형호(10/1) 김충영(10/8)
- 김효희(10/8)
- 지디테크 서순일(10/9)

틀린그림 찾기

5곳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찾아보세요.
누가 누가 잘 찾나!

